

세이버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사업체 심방 안내
2018년 신년 사업체 심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이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 2월 구역 모임 안내
2월 구역예배를 드리시고 각 구역의 구역장분들은 구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친교(우드사이드 구역)
이번 주는 롱아일랜드 구역에서 봉사하십니다.
다음 주는 설(구정)을 맞아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2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2/11		김유순	롱아일랜드 구역	한순자
2/18	김유신	배인순	교회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방학 중)	수요일 저녁 8시	1층 친교실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주일설교 요약

제목 : 삼손 이야기

본문 : 사사기 14장 1~9절

- 기도제목 : 1.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2. 세상과 구별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구별됨을 깨뜨리는 이 세상의 끈들을 조심하게 하소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삼손의 탄생부터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름을 받고, 신실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들 가운데 **탄생 기사부터 나오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사무엘,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도 탄생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인물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인물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시는데, 삼손도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나타났지만, 아마도 삼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사였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이름처럼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어둠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삼손 태양과 같은 삼손을 통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으니, 참으로 찬미되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13장 24절**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나요?** 하나님의 바라크(복을) 받았던 인생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여인의 무릎에서 눈이 뻗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유혹거리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다향의 이야기처럼 기대되고 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쉽게 안타깝고 슬퍼합니다. 잘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삼손의 이야기는 편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 14장은 이제 세상으로 나온 삼손의 처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처음 이야기 속에도 삼손의 실패의 요인들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린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을 가는데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길에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피해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인입니다. 그 땅으로 가지 말라!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타고난 엄청난 힘을 이용하여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벌어진 일을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대신 그 여자에게는 말했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삼손은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에게는 말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도 삼손의 실패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죽었던 사자의 몸에 벌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실인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규칙도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실인으로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3가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세가지 중에 두 가지를 삼손의 이야기 처음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나에서 두 가지를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머리를 깎기는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나실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삼손처럼 3가지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
삼손과 같은 사람이 나실인의 사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멋있게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삼손의 이야기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준비하시는 이유는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실인으로서 부르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통계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선교사 순희 선교	선교사 우간다	선교사 브라질	선교사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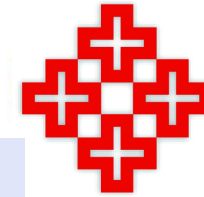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차인 지휘자/반주자 김타미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2월 11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전서 강해) 기도 / 김유순 권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하늘의 문을 여소서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번(시편13편)	수요일 저녁 오후 8시
찬 송 Hymn	356장	
기 도 Prayer	최홍만 장로	
성 경 Scripture	사사기 14장 1~9절	토요 새벽기도회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말씀 / 정요한 목사 (사도행전 강해)
설 교 Message	삼손 이야기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514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